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6. 4. 20.(월) 즉시 (온라인 보도) 2026. 4. 20.(월) 15:00

“소방 자료(데이터)와 첨단 기술로 농촌 안전 지킨다”… 소방청-농촌진흥청, 농업 현장 안전 체계 구축 강화 업무협약

- 4월 20일 소방청에서 협약식 열려… 사물인터넷 기반 농기계 사고 감지 등 신속 공유 체계 확대
- 소방공무원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용 및 무인 로봇 등 첨단기술 실용화 상호 협력

□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과 함께 4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소방청에서 농업 현장 안전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정보 연계 및 첨단기술 공유 등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그간 소방청과 농촌진흥청은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농기계 사고 알림 방식(시스템)과 119상황실 정보 연계, 소방청 구조 출동 자료 공유 및 분석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이번 협약은 기존에 추진해 온 3개 협력 과제를 한층 확대하여 지속하는 한편, 농업 현장의 안전 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한 신규 과제 1건을 더해 총 4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주요 협력 내용은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와 119상황실 연계를 통한 신속 대응 확대 ▲구조 출동 원자료 기반 농작업 사고 현황 분석으로 예방 대책 지원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확대 ▲재난 대응 및 농작업 효율화를 위한 첨단장비 기술 신규 개발과 실용화 등이다.

□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사고 장소 및 지역 위치 정보 공유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소방청의 119 구조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농작업 사고 다발 지역과 고위험 지역을 도출할 계획이다.

* 논, 밭, 비닐하우스, 농로, 축사 등 사고 장소와 교통사고 및 끼임사고 등 사고 유형

○ 또한, 재난 대응과 농작업 효율화를 위한 첨단 기술의 현장 실용화도 속도를 낸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말벌집 퇴치 드론을 실제 소방 출동 시 활용하거나, 재난 현장과 험지 농작업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첨단 무인 로봇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청이 보유한 체계적인 현장 대응 방식(시스템)과 구조 활동 자료 뭉치(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농업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하며,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이 동시에 작동하는 촘촘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소방청과의 정보 공유 및 분석을 통해 유형별 재해 감소를 위한 전략 수립 등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실질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구조과	책임자	과 장代	조태현	(044-205-7611)
		담당자	소방경	이윤선	(044-205-7612)
	농촌진흥청 농촌지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노형일	(063-238-0910)
		담당자	지도관	차지은	(063-238-09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